

## 2-44. 우리나라 고문헌 속의 반딧불이 기록에 대한 문화곤충학적 접근

윤 일, 문태영

고신대학교 법·보건생물학연구소

우리나라 기록문화에 언급된 곤충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반딧불이는 발광(發光) 특성으로 인해 사람에게 쉽게 인식되고 특이하게 생각되는 곤충이어서 역사서, 시, 소설 등에서 그 기록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고문헌에서 나타나는 반딧불이의 역사 문화적인 기재를 통해 반딧불이의 종에 대한 시공간적인 분포를 추적하여 보았다. 그래서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 그리고 김시습의 금오신화와 시 “형화(螢火)”를 중심으로 정약용의 다산시선 중에서 “螢”, 또 전래되는 속담 및 속신어에 나타나는 반딧불이의 존재를 검토하였다. 대부분의 고문헌에서 반딧불이는 ‘螢’, ‘螢火’로 기록되고, 번역서에서는 반딧불, 개똥벌레 혹은 반디로 기록되어있다.

일부 기록은 특히 고려사의 경우 중국의 문학적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도 많으므로 기록된 반딧불이의 분류/생태적 정체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해석할 필요가 발견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세조실록에서 기록한 반딧불이에 대한 대부분의 기록은 관찰된 사실에 대한 기록보다는 반딧불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인상적 표현이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딧불이에 대한 상식과 기억을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한편 여러 기록 중에서 제주도의 생물자원에 대해 왕실에 보고된 기록을 통해 당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동물에 대한 분류 체계와 제주도의 생물상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 문학이라는 범주로 구분하여 바라본 탓에, 사실적인 묘사보다 인상과 감상에 비중을 두어 표현했을 것으로 믿어졌던 금오신화 중 취유부벽정기 부분이나 김시습의 시인 “螢火”에서 기록한 반딧불이는 사실적인 표현과 세밀한 관찰을 통해 당시 반딧불이에 대한 인상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특징까지도 관찰할 수 있다. 그런 고문헌의 기록은 대체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파파리반딧불이 *Hotaria papariensis* (Doi), 애반딧불이 *L. lateralis* Motshulsky, 늦반딧불이 *Lychnuris rufa* (Olivier) 3종의 출현시기나 서식지역과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이 3종이나 적어도 비슷한 생태를 가진 종들이 과거부터 우리나라에서 우점하는 반딧불이종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